



아이들 믿어주는 만큼 자존감 향상

지난 4년 동안 백산초등학교에 근무하며 어울림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체감,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선생님은 “도시의 학교와 비교해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해서 어울림학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열악하다는 인식을 줄이고 오히려 시골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했다”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는 같았기에 소통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 이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갔다. 선생님들부터 달라지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일구는 학교’가 됐다는 점이 어울림학교로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성장한다는 말을 백산초 아이들을 보며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학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으며,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들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했다.

수업태도는 물론 교육과정이나 동아리 등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하며 ‘스스로 일구는 학교’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산초의 무학년제 동아리의 경우 자율·자치 학생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

이다. 하고 싶은 일도, 경험하고 싶은 일도 많은 아이기에 짜여진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두지 않고 스스로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제2의 교과서 삼아서 계절, 절기의 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교육을 통해 관찰력을 키워주고, 공존하며 사는 법을 자연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 또한 백산초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학부모와 주민들 참여도도 높아져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결과는 아이들의 표정에 그대로 묻어났고, 이는 학부모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변화까지도 가져왔다.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 행사에 겨우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학부모로서 참여해야 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 찾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 대한 믿음도 커지면서 생업의 터전을 아이들 체험 활동 장소로도 내어주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처럼 학부모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발표회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 사이가 여간 친밀한 게 아닌 듯하다.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마을 행사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이들이 마을의 활력소임을 느낀 뒤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만들어 주거나 옛날부터 전해 오는 민속놀이를 직접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

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다고.

이런 백산초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는 지역에 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전교생의 절반이 부안군 읍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일 만큼 오히려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역과 밀착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이 같은 변화가 반갑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 행복하고 꿈을 꾸는 학교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더욱 뿌듯하다고 백산초 선생님들은 입을 모았다.

그동안 어울림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역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는지 등 신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 김아영 선생님의 표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은 또, 선생님들 간의 소통과 협력 문화 역시 어울림학교를 통해 달라진 점이자 백산초등학교의 또 다른 강점이라면서 이런 분위기는 김강주 교장선생님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위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는 김강주 교장선생님은 “집에서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듯이 학교 역시 마찬가지”며 “내 역할은 우리 선생님들이 활기차게 교육현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오늘의 변화는 모두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선생님과 학교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역과 더욱 밀착, 학교도 지역 일부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 학교에서 이장단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속에서도 농어촌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방과 후 교사를 찾지 못할 때는 속상하다고. 이는 백산초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촌학교 대부분의 애로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도시 아이들과 달리 교육 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시골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백산초 선생님들은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어울림학교가 농어촌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토양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선생님은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산초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 이는 아이들이 곧 지역의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아이들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전북교육**

